

주주 및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이에프더블류(주) 대표이사 진정아입니다.

최근 저희 회사의 실적 부진으로 주주 및 투자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송구스럽습니다.
상장 준비 때부터 지금까지 당사에 보내주신 성원 잊지 않고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저 역시 마음이 몹시 무거웠습니다.

당사의 핵심 역량인 마찰용접 기술은 이종 비철금속을 완벽히 결합할 수 있는 유일한 상용화 기술입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 2차전지 주요 부품인 음극단자 시장을 선도하며 성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객사에서 2차전지 설계를 변경하여 당사 제품의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2분기 적자를 기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당사에서 미처 예측할 수 없었던 외부 요인이나,
경영자로서 주주 및 투자자 분들의 성원에 실적으로 보답할 수 없음에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하지만 당사는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하여 제2의 도약을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사는 상장 전부터 음극단자에 이어 당사의 미래를 견인할 제품인
부스바(Busbar)의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 5건의 부스바 제조 관련 특허를 등록했고, 올해 2건의 특허를 추가 등록하였습니다.
동시에 다양한 부문의 글로벌 기업들과 제품 공동 개발 및 공급 논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비밀유지협약이 있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신사업은 단계적으로 그리고 다각적으로
진전되고 있어 조만간 초도 납품 등 희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흔한 말이지만, 뼈를 깎는 쇄신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마찰용접은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력인 만큼 적용 제품을 다변화하여 전기차 및 수소차 시장에 본격 진입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노력이 실적으로 반영될 때, 그 수익을 주주 분들과 나눌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해 초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 주주 분들을 대상으로 차등배당을 실시한 것처럼,
앞으로도 회사의 존속과 성장, 그리고 이익의 배분에 가치를 두겠습니다.

저희 에이에프더블류를 믿어주신 여러분께 늘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경영을 통해
투자자 분들에게 신뢰받고 함께 성장하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장마와 무더위 속, 주주 및 투자자 여러분과 가족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에이에프더블류(주) 대표이사
진정아 배상

